

대상자 문제 파악법

최 영 희

<이화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문제파악의 필요성

간호원의 역할개념이나 전문직 간호업무의 정의에 대해 논의되어 온바 「간호는 전문적이기때문에 독자적으로 대상자(환자개인, 가족단위 또는 지역사회 단위)를 관찰하고 간호하며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가고 있으며 따라서 관찰이 독립적인 간호원 활동의 핵심이라고 주장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자들은 간호원의 기능과 역할을 논할 때 간호의 기능은 기능의 수준 고하를 막론하고 간호 과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이 간호 과정이 각급 수준의 간호 기능에 기본이 되고 기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여 간호에 있어 간호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한 찾아 볼 수 있다. 사실에 있어 여태까지 강조된 관찰과 간호 과정은 간호의 핵심적 활동임을 인정해야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전문적으로서 간호 기능은 간호 과정이라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간호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간호원은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환자의 문제를 파악 규명하고 이를 위한 간호계획을 세워 수행하여 나가야 될 것이다. 임상 간호원이 독자적인 간호 진단 또는 대상자의 문제파악을 환자 개인인 대상자에게 그 범위를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지역사회 보건 간호원은 대상자 개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안녕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간호력 조사에 의한 지역사회 건강 요구를 확인하는 임무가 더 첨가된 것이라 보겠다. 즉 지역사회에 사는 건강 사업의 초점을 한 가족의 건강 문제나 간호 요구에 있다고 본다면 간호과정 역시

가족 단위나 지역사회적인 보건사업 단위 위주로 적용시켜 나가는 문제가 있다. 간호원이 환자단위, 가족단위 및 지역사회에 문제로 제기된 사업단위 등에 대하여 모두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하면 개인 간호나 집단 간호에서 보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 및 대상자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 산재해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과정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접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제 파악의 단계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분류 분석하는 단계, 종합 정의하는 3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치밀한 관찰 원할한 의사 소통, 각종 정보가 될 수 있는 이학적 검사 소견 및 문헌 고찰이 필요하고 이에 중복이나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준비 작성한 간호력 양식을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 간호력의 구성은 대상자 개인의 특성이나 가족에 관한 여러가지 면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이 양식을 사용할 때는 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료수집, 분류 분석 및 종합을 해야 한다. 가족은 언제나 동일한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구성원이 끊임없이 출생, 사망, 분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동일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관찰한 시간에 따라서 연령, 경제력, 권력구조 역할 구조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간호 요구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문제 파악을 위하여 발달 단계별 문제성에 유의하여 문제를 분류해야 된다. 또한 인체의 생리과정, 병태과정, 심리-정신면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분석하여 문제 간의 유사성, 유의성 등을 잘 맞

<51페이지로 계속>

할 수 없고, 심각하게 내 직업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엄격하고 호되게 비판하며 사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충실하게 학문을 전하는가? 연구했는가? 학생을 보살피는가? 내가 大學 선생을 하는 것은 나 이외의 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이바지하기 위하여 준 직업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직업은 내 사사로운 직업이 아니고 이 직업을 통하여 큰 뜻을 펴기 위하여 神이 나로 하여금 이 직업을 준 것이라고 그 태도를 갖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내가 간호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간호원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간호원이 된 것은 神으로부터 간호원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내가 마다 할 수도 없다.

職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변화로써 대장장이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현재의 엔지니어가 되었고, 중세기의 보잘 것 없는 어릿광대가 演藝人으로 轉換되었다. 모든 직업이 모두 그렇게 되었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職業 자체를 賤視하였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였다.

職業은 科學적으로 研究되어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西洋社會에 있었던 직업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職業意識은 意識構造上에 革命을 이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專門職業이 되었고 專門職이 생긴 것이다. 특히 女性의 경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처음부터 거부나 大家가 된다는 생각은 없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1880~1890년 開化期였다. 그때에 이화학당, 정신학당이 생김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들 모두가 중요하지만 집안속에서 일하는 것이 집밖으로 뛰어나와 女性이 집밖에서 일했다는 것은 간호교육의 시작이다. 한국의 역사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여성전문직인 간호교육이다. 女性解放運動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간호교육이고 어려운 意識속에서 처음으로 專門인 직업을 안겨다

<52페이지에서 계속>

추어 본 뒤 종합하여 문제를 진술한다. 문제의 진술에는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종합할 때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문제 파악은 언제든지 파악에서 시작되어 파악으로 연

준 것이 간호학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내 직업이 사사로 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뜻에서 갖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긍지를 갖는다. 나는 男女共學하는 大學에 선생으로 있으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많다. 입학당시는 남녀학생이 동등하다가도 4학년 졸업시에는 여학생은 꿈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에서 부모나 친구가 시집가기를 바라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게 압력을 가한다. 어떤 때는 男子學生보다 훨씬 뛰어난 女學生도 社會的인 압력때문에 뒤떨어지고 있다.

女性解放運動은 “총태의 여성적이다”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겠다. 아직도 한국사람의 의식에는 女性에게는 적고 잔잔한 것, 소극적인 것을 기대한다. 女性이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팔자가 세다고 한다. 팔자가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남편의 옷이나 입혀주고 구두나 닦아주고, 반식모적 역할과 상량한 것이 팔자가 세지 않다고 한다면 여자아이에게도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價値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한다.

現代社會는 미분화된 사회에서 분화된 사회로 비전문화된 사회에서 전문화된 사회로 변화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構造적으로 改善된 사회에 어울리나 직업에 대한 價値觀도 변화해야 한다.

職業에 대한 새로운 倫理가 進歩的인 態度로 創意的이고 知的인 交流로 스스로 인생을 깨우쳐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한국의 男性들은 女性에 대한 태도가 保守的이다. 현대 청년들도 보수적인 女性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男性은 어머니에게서 깨우쳐야 한다.

看護員인 전문직 여성은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때까지 활용하면서 남을 도와 주겠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여야 할 것이다.

결되는 계속 과정이라는 사실과 대상자의 문제는 대상자의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것이며, 전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의 파악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